

코로나 확진 하루 1000명 시대 지쳐도 개인 방역 준수가 살 길



광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세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는 1000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광주는 연일 롤러코스터를 탄 듯 확진자 발생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0명 넘게 오르내리고 있다. 그나마 전남은 최근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는 탓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데도, 이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사·도민이 느끼는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지만, 우리가 먼저 죽을 것 같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1년 가까이 반복되는 코로나 일상에서 시민들의 방역 의지도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그나마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잠시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백신접종 시기와 집단면역 형성 기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지역민도 늘고 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지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특히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 자체 등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총 842명

시민들 답답함에 활동량 늘려

다중이용시설 방역에도 빈틈

소상공인 "더 이상 못버텨" 반발도

이다. 이날 하루는 신규 확진자가 3명에 그쳤지만, 전날에는 10명이 집단 감염됐다.

광주시는 지난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00시간 멈춤'을 발령하는 등 한때 2단계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했는데도, 하루 확진자 발생 추이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2명을 기록하는 등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음식점·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출입명부나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찍는 등 '코로나 19 방역 일상'을 준수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하다. 그동안 외출을 삼가고, '집콕'을 하던 시민들도 점점 외부로 나오는 모습이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일상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량도 늘고 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술집과 식당 영업 제한을 통해 사실상 야간음주 행위를 막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민들 사이에 선 지인과 만나 도심 호텔이나 모텔, 펜션, 파티룸

등 숙박업소에서 음주 모임을 갖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동안 잘 지켜오던 시민들의 일상생활 방역도 빈틈이 생기고 있다. 당장 광주시내 PC방에서 마스크 등을 쓰지 않은 채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목욕탕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규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작성하는 손님도 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좌석을 비워놓았던 예전과 달리 모든 테이블마다 손님을 받는 음식점들도 적지 않다. 영업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음식점을 찾아 모임을 갖는 시민도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타격이다. 1년간 이어진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반복되자, 영업 제한 등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카페 사장 A(여·38)씨는 "무조건적인 영업 제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며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현실적 대안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시민의 피로감은 당연한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소홀해질 수 있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특별 개정안 국회 안전조정위 통과

22일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국민의힘, 거센 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이하 아특별)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아특별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전조정위에 상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르던 오는 22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관련기사 3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아특별 안전조정위가 시작됐으며 오후 10시 표결 결과 4대 2로 원안 의결됐다.

안전조정위에는 이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병훈·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근·이용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0일까지 계속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과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이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정상 운영 자체가 힘들다"면서 "국민의힘이 호남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임명한 채 민주당이 안전조정위 표결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아특별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동 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정위원회에서조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나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다를 바 없다"며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이상직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안전조정위 선임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수정안에 대한 배경과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위원장은 수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원안에 대한 토론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5개 자치구, 여수·광양·순천

조정대상지역 지정...집값 과열 막는다

정부가 광주 5개 자치구와 여수, 광양, 순천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하며, 6개월마다 조사를 통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어지면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전 자치구가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여수·광양·순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여수는 동(洞)지역과 소라면, 순천은 동지역과 해룡·서면, 광양은 동지역과 광양읍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중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용(LTV)도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이외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오는 2021년 1월15일까지 '부동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광주 등 주요 과열지역의 거래질서 교란과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곡성 성폭행 누명, 무성의한 수사 있었다 ▶6면

2021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품작 심사 ▶14면

체육기자가 뽑은 2020 스포츠 10대 뉴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자연을 품은 바람, 옥토를 비추는 태양, 전남의 신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꿈을 실현합니다



글로벌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에너지산업융합
생태계 구축



그린뉴딜 기반
해상풍력단지
구축



도민체감형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